
니카라과: 혁명 프로젝트에서 권위주의 왕조로

엘비라 쿠아드라 리라

중앙아메리카 초학제 연구소 소장

원제와 출처: Elvira Cuadra Lira, "Nicaragua: de proyecto revolucionario a dinastía autoritaria", *Nueva Sociedad*, No. 300, julio-agosto de 2022, pp. 65-73.

핵심어: 권위주의, 산디노주의, 로사리오 무리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1980년대에 산디노주의(Sandinismo)에 대한 언급은 니카라과 국내 및 국외 일부 계층에서 존경과 열정 그리고 연대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본래 아나스타시오 소모사의 독재에 저항하는 민중 혁명을 의미하였던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니카라과 국민들과 다양한 국제 활동가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검은 그림자로 뒤덮여버렸다. 현재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가 이끌고 있는 산디노주의는 비록 니카라과 사회가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할 모든 권리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좌에 올라 그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 모든 권력 자원을 동원하는 왕조적이고 권위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다.

혁명으로 인한 분열

1990년 대선 결과는 산디노주의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현실을 강타하는 사건이 되었다.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으며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던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확신하며 출마하였지만 결국에는 패배하였다. 유권자의 약 80%가 투표에 참여하였던 이 대선에서 국민야당연합(Unión Nacional Opositora: UNO) 후보인 비올레타 바리오스 데 차모로¹⁾가 54%의 득표율로 승리하였고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 FSLN) 후보인 오르테가 대통령은 40%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오르테가는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하였음을 인정한 지 며칠 후 한 광장에서 개최된 한 집회에 참석해 그의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는 아래로부터 통치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그가 미래에 다시 권력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조기에 공표하였다.

니카라과 사회는 양분되었고 혁명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대선 승자로서의 야당인 국민야당연합을 지지하는 국민들 간에는 커다란 불신으로 점철되기에 이르렀다. 신(新)정권과 구(舊)정권 간 정권 이양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긴 하였지만 니카라과는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되는 갈등의 파고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군 예비역들, 그리고 1980년대를 관통했던 니카라과 내전의 주역이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정치계의

1) 니카라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1990년 대선에서 54.74%의 득표율로 니카라과 5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90년 4월 25일부터 1997년 1월 10일까지 재임하였다(역주).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콘트라 반군(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反)산디니스타 반란단체)이 재무장을 하였다.²⁾

대전에서 패배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역시 극심한 분열양상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친 오르테가계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여러 계파가 탈당하였다. 이들 중 하나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산디니스타 혁신운동(Movimiento Renovador Sandinista)으로 현재는 혁신민주연합(Unión Democrática Renovadora: UNAMOS)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당의 주요 인사로는 게릴라 활동을 통해 혁명의 아이콘으로 명성을 얻었던 도라 마리아 테예스와 빅토르 우고 티노코, 그리고 우고 토레스 등이 있다. 그런데 현재 테예스와 우고 티노코는 조국에 대한 “반역죄”로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토레스는 수감 생활 중에 병을 얻어 출소 후 2022년에 사망하였다.

당 내부에 반대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대내적 상황과 소련의 붕괴 이후 위기에 봉착해 있던 국제 좌파 진영으로부터의 유의미한 도움이 없던 대외적 환경 속에서 오르테가는 국회 의석의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과 다시 정권을 잡게 된 지방 정부 및 상당수 사회 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 기구 전체를 통제하고 국회에서의 권력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친 오르테가 지방정부와 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해 오르테가는 니카라과의 가장 호전적인 야당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재집권을 위한 그의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2) Antonio Lacayo Oyanguren, *La difícil transición nicaragüense. En el gobierno con doña Violeta*, Fundación UNO, Managua, 2005, y E. Cuadra Lira, Andrés Pérez Baltodano y Ángel Saldomando, *Orden social y gobernabilidad en Nicaragua, 1990-1996*, CRIES, Managua, 1998.

야당 시절 오르테가가 주도했던 최고의 정치적 사건은 입헌자유당(Partido Liberal Constitucionalista: PLC) 대표이자 그의 정적이었던 아르놀도 알레만³⁾과 2000년에 체결한 정치적 합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협정은 1차 투표에서 당선을 위한 득표율을 낮추는 선거법 개혁을 통해 오르테가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이 개혁 법안은 두 사람이 국가권력기관, 특히 최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개혁 법안을 충실히 따르는 법관들을 임명함으로써 이 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고의 승리자는 오르테가였다.

그 당시 오르테가는 그의 의붓딸인 소일라메리카 오르테가 무리요가 폭로한 학대 사건에 직면해 있었다. 대선 패배 후 권력에서 물러나있던 오르테가는 현 부인이자 소일라메리카의 친모인 로사리오 무리요의 공개 지지를 등에 업고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었으며 정치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로사리오 무리요는 오르테가의 왕조 정치 프로젝트에서 핵심적 인물이 되었다.

오르테가의 통제 하에 있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포퓰리즘적 관행과 가속화된 이데올로기적 반동화 그리고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연속으로 세 차례 집권하였던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채택하였던 경제 개혁을 지지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실용주의를 통해 권위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리더십의 기제가 되어버렸다.

권위주의적 조합주의의 정착

제도적인 통로를 확보하게 된 오르테가는 2007년 대선에서 38%의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었다. 이 득표율은 비록 낮은 수치였지만

3) 니카라과 정치인으로 1996년 대선에서 50.99%의 득표율로 제 5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97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월 10일까지 재임하였다(역주).

대내외적으로 그의 정부에 합법성을 부여하기에는 충분한 수치였다. 니카라과의 다양한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는 오르테가가 향후 이끌 새 정부에 회의적 시각을 보냈고 심지어는 불신을 하였지만 선거 결과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말했듯이 오르테가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의심이 가져오는 이익”을 그에게 주길 선호하였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4.2%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같은, 2018년 직전까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뚜렷해진 몇 가지 경향의 혜택을 받았다. 폭력과 치안 불안의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던 다른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는 달리 니카라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 지표 및 치안불안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경제 분야에 있어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제도에 등록된 인원이 2007년 45만 명에서 2017년에선 90만 명으로 두 배로 증가하였다.⁴⁾

정치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다니엘식” 산디노주의는 두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첫째는 대규모 민간 자본 및 군대와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오르테가 정권에 대한 모든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감시 및 사회 통제 장치 네트워크를 작동하는 것이었다. 대규모 민간 자본 및 군대와 의 협약은 베네수엘라와의 협력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이 자금에 대한 정보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몇몇 경제학자들과 언론의 탐색 보도에 따르면 34억 달러가 넘는 자금 중 80%가 오르테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자 영부인이며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던 로사리요 무리요가 신뢰하는 측근들 및 친인척들이 직접 운영하는 알바니사(Albanisa)라는 지주 회사를 통해 8년에 걸쳐

4) Edmundo Jarquín (coord.), *El cambio azul y blanco. Dejando atrás el régimen de Daniel Ortega*, FUNPADEM, Managua, 2020.

개인 자금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⁵⁾

대기업들과의 동맹 및 이른바 “대화 및 합의 모델”은 오르테가와 무리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권력 그룹의 탄생과 공고화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 가족들은 석유 유통과 같은 민감한 부분과 전력 생산 및 공급, 커피, 육류, 우유, 설탕, 목재 및 기타 상품 수출에 대한 통제력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2018년까지 민간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누렸고 국가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였으며 임금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고 노동 청구를 거부할 수 있었으며 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대가로 국회에 로비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운영하였다.⁶⁾

군부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비호 하에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업에 참여하고 국군 후생연구소(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 Militar, IPSM)를 통해 건설, 목재 및 육류 수출과 같은 핵심 부분에 있어 군이 운용하는 기업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오르테가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용하였다. 정치적 측면에 있어 군부는 오르테가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치적 지지에 대한 대가로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해서 오르테가 대통령은 2014년에 대통령 직속의 지휘 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군사 기구에 대한 모든 민간 감독 및 통제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군법 개정을 하였고 대통령의 고려 하에 군 사령관을 유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였으며 건설 및 통신 분야와 같은 핵심 분야에 있어서 민간 기관들의 주요 지위에 퇴역 군 장교들

5) César Batiz, Octavio Enríquez e Iván Olivares, “La bonanza de Daniel Ortega se llama Venezuela,” en *Connectas*, s./f., <www.connectas.org/la-bonanza-de-daniel-ortega-se-llama-venezuela/>.

6) “El idilio de Daniel Ortega con el gran capital,” en *Connectas*, s./f., <www.connectas.org/especiales/nicaragua-no-calla/el-idilio-de-daniel-ortega-con-el-gran-capital/>.

을 임명하였다.⁷⁾

2007년부터 오르테가 대통령은 정권에 충성하는 법관들을 임명함으로써 행정부 이외의 다른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선거 기관에 대한 통제는 그의 가족 정치 프로젝트를 공고화하려는 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선에서 그는 선거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재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통제권을 통해 그는 대부분의 시장직과 국회의원 의석을 통제할 수 있는 선거 사기를 용이하게 저질렀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는 이후 대법원 및 기타 법원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으로써까지 확대되었다.

니카라과 권력 상층부에서 관계망을 구축하는 동안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중들 사이에서 분출되는 정권에 대한 모든 불만 표현을 억제하기 위하여 억압, 감시 그리고 사회적 통제를 위한 장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에는 경찰과 같은 공공 기관에서부터 2008년부터 정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구타하고 폭행하기 위해 시위 장소로 몰려 나간 친정부 성향을 띤 젊은 지지자들로 구성된 소위 “타격 그룹”과 같은 준국가단체, 시민권력위원회(Consejos del Poder Ciudadano: CPC),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각 지역과 공공 기관에 조직된 산디니스타 영도 위원회(Comités de Liderazgo Sandinista)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7) E. Cuadra Lira, “Las reformas del sector seguridad en Nicaragua: cambios significativos en el paradigma de la seguridad,” en Catalina Niño Guarnizo (ed.), *Seguridad regional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Anuario 2014*, Fundación Friedrich Ebert, Programa de Cooperación en Seguridad Regional, Bogotá, 2014, y E. Cuadra Lira, “El nuevo protagonismo militar, Fuerzas Armadas y poder,” en E. Jarquín (coord.), *El régimen de Ortega. ¿Una nueva dictadura familiar en el continente?*, PAVSA, Managua, 2016.

이전의 혁명 정당이었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사적 프로젝트에 복무하는 기계에 머물 정도로 급속히 타락하였다. 2016년부터 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영부인 로사리오 무리요는 왕조의 세습을 보장하기 위해 당 기구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그녀는 특권 분배와 직권 남용 그리고 불법 사업 참여를 통해 젊은 당원들과 함께 자신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가와 보다 긴밀히 연결된 이 새로운 그룹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 유사성과 정치적 궤적으로 인해 당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던 “역사적 당원”을 대체하였다. 당 내부의 반대 세력이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고유한 지지 기반을 갖춘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는 당 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였다.

국외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오르테가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기간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 경향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였는데 이 경향은 그의 목표 달성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에 있던 좌파 정부에 더하여 선거를 통해 새롭게 일련의 좌파 정부들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수사학의 맥락 속에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ALBA)⁸⁾이 결성되었다.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테가 대통령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2018년까지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국가 정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정부들로부터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오르테가 대통령

8) 미국이 주도하던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설립을 반대한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01년 12월에 있었던 제3차 카리브 정상회담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해 처음 제안을 하였고 2004년 12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기구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현재 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온두라스는 2009년에, 에콰도르는 2018년에, 볼리비아는 2019년에 탈퇴하였다(역주).

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 특히 온두라스의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과는 이데올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다. 미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및 미주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중미경제통합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구들이 니카라과 정부와 협력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양한 경제, 사회, 심지어는 정치 부문에 있어 오르테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조합주의는 비록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 권력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제왕적 정치 프로젝트의 가속화된 전진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민주적 형식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기능적이었다.

체제를 뒤흔든 사회적 폭발

2018년 4월 은퇴자와 납세자 그리고 고용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니카라과 전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이 사회적 폭발은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권위주의적 프로젝트의 “선택” 행진을 급작스레 막아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해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 대한 오르테가 대통령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대응이 파열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동맹 체제와 그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붕괴되었다.

사적이고 배타적인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는데 익숙하였던 오르테가 대통령은 처음에는 민간 부문만을 대화 주체로 하는 국가적 대화를 제안하면서 국민의 반정부적 경향을 억제하고 혼란한 정세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를 희망하였지만 시민들도, 기업인들도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오르테가 대통령은 카톨릭 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대화 참가 대상

을 보다 다양한 사회 부문들로 확대를 하였다. 그러나 이런 확대된 대화의 공표는 시위도,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탄압도 막지를 못하였다. 4월 23일 기업들 간의 조직인 민간기업 최고위원회(Consejo Superior de la Empresa Privada)는 오르테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수도 마나구아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니카라과의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⁹⁾

그 해 5월 시작된 대화와 집회 이후 기업인들이 10년 이상 오르테가 대통령과 유지하고 성장시켜 왔던 동맹이 파기되었다. 이것은 정권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후 오르테가 정권은 제안, 협상, 위협, 협박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동맹을 재건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실패로 귀결되었고 결국 2021년에 일부 기업 단체 간부들을 “조국에 대한 배신” 행위로 투옥하였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또 다른 전략적 동맹이었던 군부와의 동맹은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군부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에 눈에 띄게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4년 동안 지속된 사회정치적 위기 속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억압과 폭력적 진압을 통해 타개하려고 하였고 이는 국내외적으로 그의 정당성과 적자 재정 운영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오르테가는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탄압하고 공격했던 카톨릭 교회와 같은 주요 핵심 행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2021년 11월 선거 이전에 실시했던 여론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르테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겨우 18%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그의 지지율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는 이 선거 과정이 위기 국면을 넘기고 영구적 집권을 확립하며 지지 지점을 복구하기 위한 전환점

9) “Masiva marcha en Nicaragua para repudiar la brutal represión del régimen de Daniel Ortega” en *Infobae América*, 23/4/2018.

이 되길 희망하였다.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도박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소한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을 다시 한 번 보장하고 적어도 민간 부문 중의 한 부분의 이해를 통해 자신들을 지지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특히 가톨릭교회로부터의 인정은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며 지속되고 있던 사회경제적 위기와 COVID-19 팬데믹이 결합되어 니카라과 사회에 미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시민 투표에 불법과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광범위한 반정부 세력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왕조를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에 커다란 위협 인자로 등장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시민권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경쟁의 변수들을 통제하고 억압을 가속화하였다.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폭력은 더욱 고조되어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고 비판적 목소리와 독립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렸으며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0명의 정치 지도자들, 활동가들, 인권운동가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7명의 대선 후보들이 투옥되어 수감된 정치범이 180명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다.

오르테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대선 당일 유권자의 80%로 추정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부 당국의 협박과 압력, 통제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하였다라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오르테가 대통령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은 75% 득표율로 오르테가의 대통령 재선과 그의 부인인 무리요의 부통령 재선이 확정되었다고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대선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건들이 부재하였고 니카라과 국민들의 진정한 뜻도 표출되지 않았

다는 사실로 인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왕조의 생존 문제

국내외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에 올라 연속 네 번의 집권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가 직면한 환경은 복잡하고 전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몇 년 전 중단된 베네수엘라 협력 자금의 공급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고 언제든지 중단될 위험이 있는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의 대출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은 러시아, 이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재정 자금 조달원을 찾기 시작하였다. 니카라과는 이란 및 중국과의 협력 협정과 마나구아 주재 중국 대사의 임명 소식을 대서특필하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기대하였던 협력은 전면 보류되었다. 현재 니카라과는 자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개의 생명선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는 중미경제통합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이민자들이 해외에 정착하여 니카라과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오는 송금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여 니카라과 GDP의 17%에 이른다.

위기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탄압과 억압은 오르테가주의의 기저에 흠집을 냈고 침식 과정의 가속화가 더욱 명백해 지면서 이 현상이 심지어는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말과 2022년 초부터 오르테가 대통령 진영으로부터의 이탈 움직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오르테가 대통령이 임명한 다비드 맥필즈 미주기구 니카라과 대표가 미주기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르

테가 대통령을 독재자로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임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탈 현상에 대한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대응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오르테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결국에는 투옥된 한 “역사적” 당원의 경우처럼 자신의 지지 층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억압하는 것이었다. 당 내부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운동이 시도되었지만 억압과 협박으로 진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가 당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불리한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영속적인 권력 수립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지 기반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 부문과의 동맹을 재구축하는데도 실패하였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더욱 큰 사회적 불만이 이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오르테가 대통령이 선택한 대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승인을 통한 경찰국가의 “제도화” 및 400 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해산을 통한 시민 사회의 “사막화” 그리고 시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일상화”다.

국제적 차원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은 스스로 고립주의 노선을 걷기로 결정하였고 위기로부터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출구 전략을 촉구하던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과 2018년부터 대결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은 스페인, 콜롬비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관계를 단절했던 대만, 그리고 심지어는 11월 대선이 열리기 전에 협상의 대안을 열려고 하였던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와의 관계에서 표출되었던 거친 외교적 교류를 통해 2021년부터 명확하게 드러났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가들에 대한 오르테가 대통령의 적개심은 니카라과 주재 바티칸 대사를 추방하고 이후 마나agua 주재 미주기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령하면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국제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니카라과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 더욱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로부터도 적절한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중앙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위주의로의 전환 역시 오르테가 정권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와 같은 정부와 보다 가깝게 만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미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오르테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경우 기권을 선호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오르테가 정권은 태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푸라기로 만든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동희 옮김